

건축과 조경 (IV)

동양의 역사와 조경 2

REPORT

Architecture and Landscape
by Oh, Sang Pyung

3. 동양의 역사와 조경 2

(2) 네 개의 섬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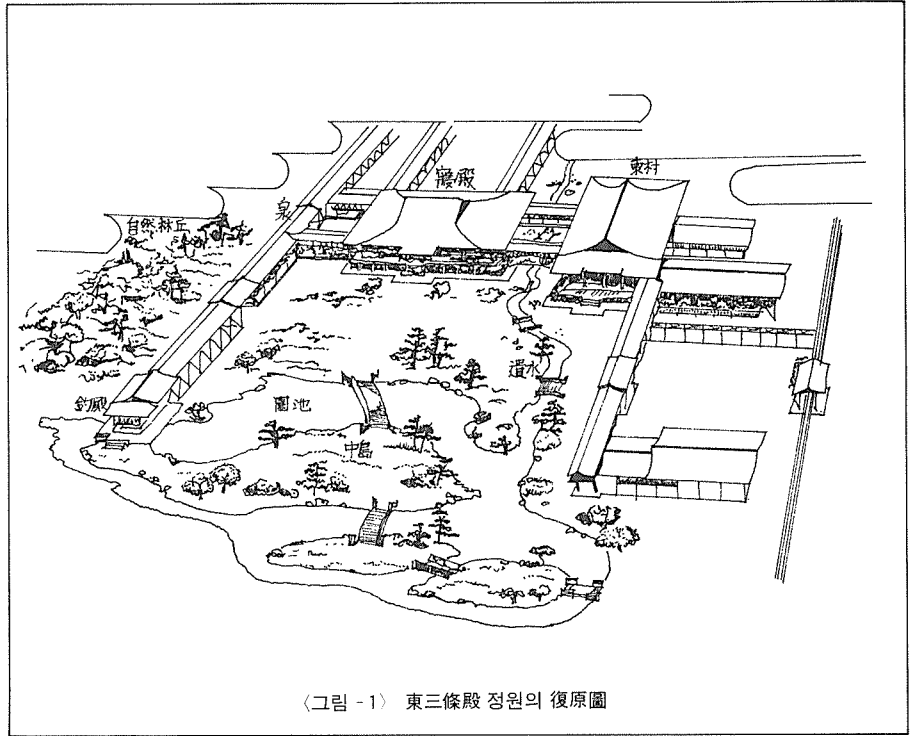
1) 네 개의 큰 섬과 3900여 개의 작은 섬 일본을 구성하는 4개의 큰 섬과 3900여 개의 작은 섬들은 오키나와로부터 북해도까지, 북위 20°에서 46°에 이르는 아열대로부터 아한대에 이르는 남북의 기온차가 심한 (Subtropic to subarctic region) 약 37만 평방km에 걸쳐 전개되고 있다. 네 개의 큰 섬의 년평균 기온은 13℃로서 비교적 온화하며 연평균 강우량은 1,500㎜이고 전국토의 약 21%가 평지인 산악과 섬나라이다. 우리 나라와 비교할 때 다소 온난하고 습윤한 기후적 자연환경을 제외하면 매우 비슷한 환경의 나라이다. 일본인들은 태고로부터 근세에 이르기까지 천혜적인 섬나라라는 지정학적인 혜택을 입어 한 번도 외세로부터 군사적인 침공을 받지 않고 살아왔으며, 1282년 쿠빌라이에 의한 몽고 침략도 완전히 방어하였다. 문화적으로는 언어가 우리 나라를 거쳐간 우랄 알타이어로서 언어와 함께 의·식·주의 기본 패턴을 우리나라 것을 그대로 받아들였으며 동양문화의 근간인 중국대륙의 영향도 강하게 받았다. 국가의 통치는 고대로부터 천황의 권력이었으나 12세기부터 시작된 봉건시대에는 막부통치 시대로서 대명(大名)이라는 무장들에 의해 다스려져 19세기까지 계속되었다. 건축은 우리 나라와 같이 동양 문화권의 공통인 목조이었지만 외침이 없어 정치가 안정되어 있었던 관계로 유지관리가 잘된 상태로 보호를 받고 있었고 원형의 충실한 재생으로서 소멸을 면한 것이 많다. 주택 건축물은 일반적으로 단층으로서 지진에는 잘 견디었으나 화재에는 약했고 주택과 뜰악은 공간적으로 엮혀 있었다. 주택은 비대칭(非對稱)인 기하학적 형태를 택한 데 반하여 정원은 뒤에 설명되듯이 유기적인 형태를 취하여 건축물과의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고 목조가옥은 수학적인 모듈에 따라서 계획되었으며 방안에는 밖의 경관에 호응하여 유도하는 장벽화(障壁面)가 그려지기도 하였다. 경관의 변천과정을 보면 고대에는 자갈만 간 공간이 신도의례(神道儀禮)나 궁중의식(宮中儀式)에 사용되었으나 자연환경의 주요소인 물, 바위, 수목에다 소악(小岳), 섬, 교량들을 끌어들이는 수법으로 변화해 갔으며 도교적인 신선설에 의한 중국의 영향을 받아 자연 소재를

사용하는 상징주의가 건물군이나 대칭적인 도시의 형태로 나타났다. 그 후 12세기로 접어들어 봉건시대가 시작되면서 동란불안(動亂不安)의 시대에는 서양에 있어서의 중세삼혹시대에 기독교가 철저히 뿌리를 내리듯이 일본에서는 우리 나라로부터 전파된 불교의 종교적 사상에 따른 극락정토의 만다라가 불안한 사회적 환경으로부터 안식을 구하는 종교에로의 귀의사상에 입각한 상징주의적 조경 형태가 나타났으며, 곧이어 정치가 안정되는 (1333~1615) 실정(室町)시대와 도산(桃山)시대에 들어와 세속적인 조경의 수법이 부활하여 중국 남송(南宋)의 영향을 받아서 이 때에는 일본문화의 전성기라 할 수 있는 최고의 수준에 달하였다. 예를 들면 선종(禪宗)이 독립된 다실(茶室)과 관소(觀所)를 위한 정적인 뜰이 있는 사원 경관을 발전시켰고 강호(江戶)시대 (1615~1867)에는 회유식(回遊式) 정원이 징검돌이 있는 다정(茶庭)으로 발전하여 생동적인 정원이 되었으며 세속적인 정원의 심미적 발전을 이루었다. 또한 이 시대에 차경(借景)의 수법이 나타났고, 식재는 바위와 같이 또는 순수하게 추상적인 형태로 낙착되어 전통에 충실한 소정원이 도시 안에 많이 마련되어 미니추어 속에 미니추어를 추구하게 되었다. 일본 조경의 역사는 비조(飛鳥)시대로부터 내량(奈良)시대 평안(平安)시대 전기 평안시대 후기 겸창(鎌倉)시대, 남북조시대 실정(室町)시대 도산(桃山)시대 강호(江戶)시대를 거쳐 명치(明治)시대 이후에 이르는 10가지의 시대로 분류해 볼 수 있으며, 우리 나라를 거쳐 들어간 중국정원 동양조경(東洋造景)의 영향을 크게 입고 있다. 즉 불교사상의 전파와 마찬가지로 6세기 초엽 백제의 유민 노자공(路子工)이 궁궐 뜰에 수미산(須彌山)과 홍교(虹橋)를 만들었다는 사실이 일본서기(日本書記)에 기록되어 있으며 일본의 조경학자들도 이것이 일본에 있어서의 조경의 시초가 된다고 보고 있다. 그뒤 침전건물(寢殿建物)을 중심으로 한 임천식(林泉式) 정원 또는 회유임천식(回遊林泉式) 정원이 발전하였고, 14세기에 접어들면서 선사상과 묵화의 영향을 입어 건축물로부터 독립된 정원은 회화적으로 변화되어 갔으며 그 결과 축산고산수(築山枯山水) 수법이 발생되었다. 이 수법은 정형되게 다듬은 나무를 심어 산봉우리 등을 상징적으로 표현했으며, 바위를 세워 폭포를 상징시켰고 왕모래를

갈아넷물이 흐르는 느낌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물을 쓰지 않으면서도 계류(溪流)의 운치를 정원 안에 나타낸 수법이다. 15세기 후반에는 바다 경치를 표현하는 평정고산수법(平庭枯山手法)이라는 하나의 유형이 발달했는데 이 부류는 왕모래와 바위 몇 개만 소재로 썼을뿐 일체의 식물을 쓰지 않는다. 일본 정원의 골격이라고도 할 수 있는 축석(築石) 기교는 이 시대에 최고로 발달하였다고 하며, 한편으로는 연못의 생김도 복잡 다양한 것으로 변화되었다. 그와 함께 일반 조경 양식도 화려한 화목류(花木類)나 정원수를 피하고 차분하고 무게있는 상록 활엽수를 많이 쓰는 경향이 늘어났다. 16세기로 접어들면서 다시 새로운 형식의 정원 즉 다실(茶室) 건물을 중심으로 하여 소박한 멋을 풍기는 다정(茶庭) 양식이 나타났고 그 뒤를 이어 임천(林泉) 양식과 다정(茶庭) 양식이 결합된 회유식(回遊式) 정원이 발생되어 오늘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 일본 정원의 특색은 기교와 관상적인 가치에만 치중한 나머지 세부적인 수법이 발달하여 실용적이고 기능적인 면이 무시되었다는 점이라고 하겠다.

2) 시대적 특징

가. 비조(飛鳥)시대: 흠명천황(欽明天皇)이 치세 때 불교문화가 백제로부터 전래(538년) 되어 이 때부터 비조(飛鳥)시대가 시작되는데 이 시대의 귀족문화의 대표자는 황실에서 성덕태자(聖德太子) 일족이고 호족(豪族) 중에서는 소야씨(蘇我氏) 일족이었다고 한다. 고대 일본에 있어서 오늘날 우리가 조경이라고 부를 수 있는 개념으로 평원이 꾸며지기 시작한 것은 이 비조 시대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을 「일본 서기」 등의 기록에서 찾아볼 수 있다. 추고천황(推古天皇) 20년(612년)에 백제로부터 귀화한 노자공(路子工)이 궁궐 남쪽 수미산(須彌山)과 홍교(虹橋)를 만들어 놓았다는 것은 앞서 말한 기록의 일부인데 이 시대의 수미산(須彌山)은 동해의 한가운데 신선들이 사는 섬이 있다고 믿는 고대 중국인들의 불로장생을 회구하는 사상에서 생겨난 것으로서 신선설(神仙設) 정원의 골격을 이루는 축조물이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수미산은 「일본서기」에 수미산상(須彌山像) 또는 묘탑(廟塔)과 같다는 설명이 있는 것을 볼 때 흙을 쌓아올려 자연석을 닦는 수법에 의해 만들어지는 석가산(石假山) 보다는 돌에 조각을 가한 석조물의 일종, 다시 말해서 한반도의 삼국시대 특히 신라시대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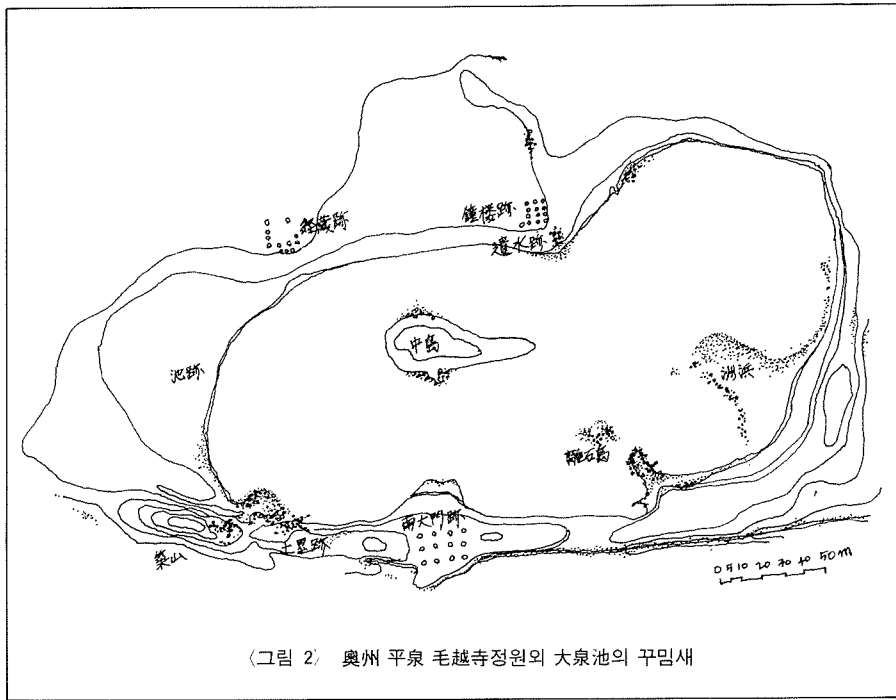
「그림 - 1」 東三條殿 정원의 復原圖

만들어졌던 가산(假山)을 돌로 만든 것이 아닌가 한다. 현재 동경국립박물관에 명치시대에 내량현비조천(奈良縣飛鳥川)가에서 발굴된 수미산 석상이 수장되어 있는데 그 생김새를 살펴보면 옛날 한반도에서 만들어졌던 박산로(博山爐: 一名 須彌山香爐)와 상통되는 점이 있음을 알게 된다. 이 외는 비조시대의 대표적인 가람(伽藍)인 법릉사(法隆寺)를 수리할 때 현대에 와서(1949년) 발굴된 주흔(柱痕)과 함께 조각돌을 깔아놓은 세류(細流)나 조석(組石)을 가진 작은 연못 등으로써 당시의 정원 모습을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다.

나. 평안(平安)시대의 전기(前期): 평안경(平安京)은 지금의 경도(京都)로서 794년 정력(延歷) 13년에 천도한 이래 천년이라는 긴 세월을 걸쳐 일본의 정치, 문화의 중심지로서 모든 입지적인 환경이 정원축조에 알맞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을 중심으로 일본 정원 문화의 기반이 굳어졌다고 볼 수 있다. 경도는 삼면이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로서 그 산으로부터 흘러내리는 하무천(賀茂川)과 대언천(大堰川)을 주류로 하여 여러 줄기의 하천이 분지를 적시고 그 복류수(伏流水)는 용천(湧泉), 지당(池塘)이 되어 분지 여러 곳에 피어 초목을 무성케 하며 지피식물(地被植物)을 조성함으로써 아름다운 자연풍경을 만들어내고 하천유역으로부터 색채와 모양이 아름다운

다양한 암석 등은 가장 좋은 정원재료가 되었다. 이러한 좋은 재료와 자연의 풍경은 정원의 배경구실이 되었기 때문에 평안(平安)시대에는 정원문화가 크게 발달하여 지금에 이르기까지 명원(名園)으로 손꼽을만한 것이 남아 있다. 평안조 전기의 정원가운데 이름 높았던 것은 궁궐 남쪽에 접한 신천원(神泉苑)과 북쪽에 자리잡은 차이원(嵯峨院)의 두 곳이다. 또한 도성 안의 인족(安族) 저택으로는 등원양방(藤原良房)의 염전(染殿) 원융(源融)의 하원원(河原院) 원고명(源高明)의 서궁(西宮) 대중신보천(大中臣輔建)의 육조원(六條院) 등이 있다. 이 중에서 하원원의 정원은 오주(奥州) 염부송도(鹽釜松島)의 경관을 본떠 못속에 여러 개의 작은 섬을 배치하여 소나무를 심고 소금 굽는 연기를 솟아오르게 했다는 점이 특이하다. 평안조(平安朝) 전기에는 이와 같은 큰 규모의 정원 외에 평전재(坪前裁) 풍의 정원이 꾸며지기도 하였다.

다. 평안조(平安朝)의 후기: 평안조(平安朝) 후기는 소위 등원(藤原)시대에 해당되는 시기이다. 당시의 귀족 저택에서는 가장 주가 되는 건물을 침전형으로 꾸미는 것이 관례로 되었는데 건물의 배치와 정원과의 관계가 가장 정형적(整形的)으로 꾸며진 것이 동삼조전(東三條殿)이다. 그림(1)에서 볼 수 있듯이 동삼조전(東三條殿) 부지의 크기는 동서 약 100m 남북 200m로서 그



(그림 2) 興州 平泉 毛越寺정원의 대사원의 꾸밈새

중심에 자리잡은 침전 건물 앞에 아름다운 정원이 전개된다. 크고 작은 세 개의 섬이 자리잡은 못에는 동북방 구석진 곳으로부터 내가 흘러들고 못 서쪽에서는 자연지형을 살린 울창한 수림의 산이 자리잡으며 서중문랑(西中門廊)의 끝부분은 조전(釣殿)으로 꾸며져 있다. 또한 침전 가운데 뜰에는 맑은 천관천(千貫泉)이 솟아오르고 있으며 못가와 섬의 대안(對岸)은 각각 붉은 옷칠을 한 구란(勾欄)을 가진 홍교(虹橋)나 평교(平橋)로 이어놓았고 물가나 섬 위에는 계절따라 다양하게 색채를 바꾸어가는 꽃나무가 심어져 있는 한편 화원 따위로 꾸며져 있다. 평안(平安) 시대의 또한 가지 특색은 불교적인 정토신앙(淨土信仰) 사상이 건축과 회화 조각 및 정원 양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이러한 경향은 일본 정원을 상징적인 것으로 변화시켜 가는 동기가 되며 정원과 건축으로 극락정토의 모습을 구성시키고자 하는 평안(平安) 시대의 일반적인 창작 사상이 되어버린 느낌마저 든다. 오주(興州)의 평천(平泉)에 평안경(平安京)의 문화를 옮겨 심는데 힘쓴 등원수형(藤原秀衡)은 그 고장의 무경광원(無景光院)과 모월사(毛越寺)를 조영해 놓았는데 모든 것이 정원과 건축물로서 극락세계를 재현하고자 한 것으로서 이러한 정원양식을 정토정원(淨土庭園)이라 부르고 있다. (그림 2) 이 양식은 뒤의 사원정원이나 사원 경내의 구성 기본형이 된다. 모월사(毛越寺)의 대천지(大泉池)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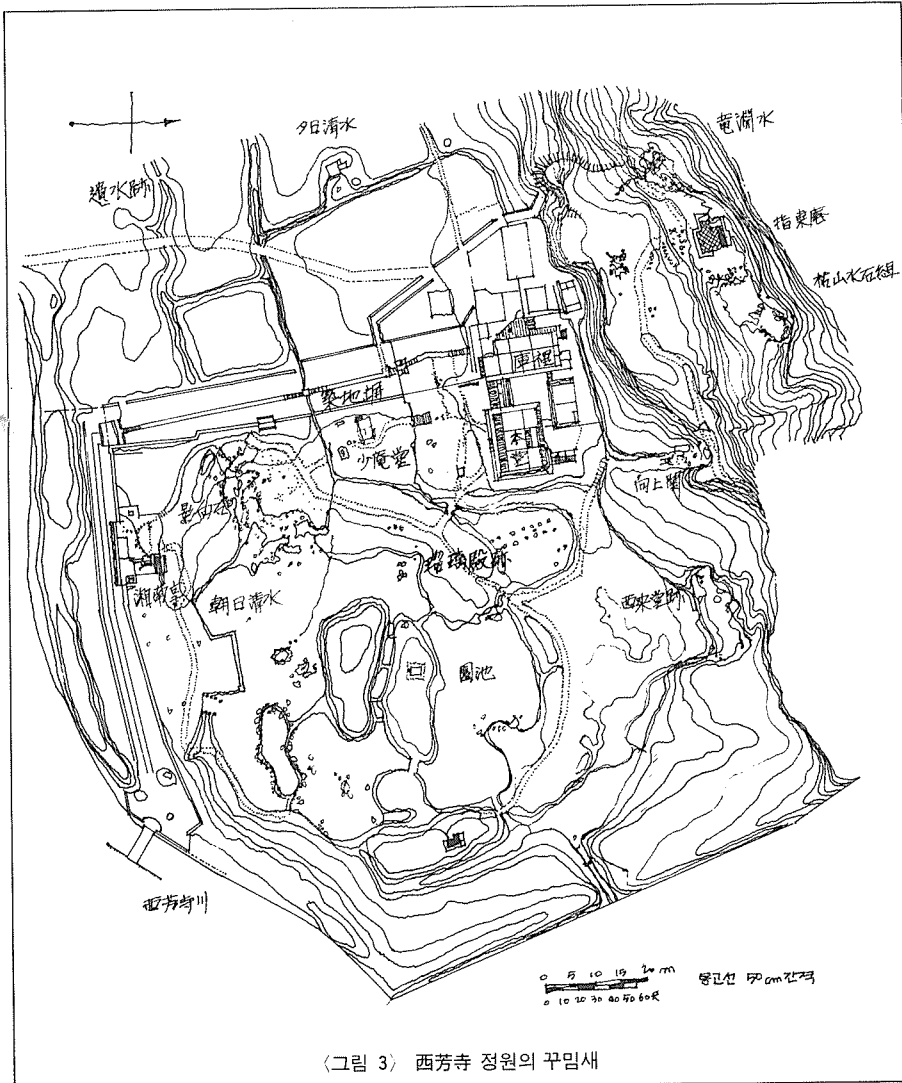
지금도 거의 옛모습 그대로 남아 있어 당시의 정원디자인과 기술을 함께 판단하는 좋은 자료가 되고 있으며, 그 디자인상의 특색은 귀족들 사이에 전승되어 내려온 조방법(造庭法) 비전서(秘傳書)인 작정기(作庭記)의 내용과 잘 부합되어 있다고 한다. 등원(藤原) 시대도 말기로 접어들면서 반복되는 전란과 경도(京都) 시가지의 지나친 개발로 수맥이 고갈되어 유서깊은 임천(林泉)도 황폐되어 볼품없이 변하고 이로 말미암아 귀족들의 저택이나 별장은 경도(京都) 근교의 자연미를 찾아 팔조구조 백하조우 우치(八條九條 白河鳥羽宇治) 등지로 옮겨 그곳의 풍물을 이용하여 정원을 구축하는 경향이 늘어났다. 한편 중국의 도가사상(道家思想)에 유래하여 우리나라 고대 조경에 큰 영향을 주었던 신선사상이 일본 조경에 건너가 신선도(神仙島)를 본뜬 본격적인 정원이 꾸며진 것은 응덕(應德) 3년(1086년)에 백하상황(白河上皇)이 낙남(洛南)에 조영한 도우궁(이궁)(鳥羽宮(離宮))이 그 시초가 된다. 도우이궁(鳥羽離宮)의 원지(苑池)에는 신선도(神仙島)인 창해도(滄海島)와 봉래산(蓬萊山)이 축조되었던 듯하며, 「부상약기」에 혹가어창해작도 혹사어봉첩엄) (扶桑略記 或覆於蒼海作島 或寫於蓬壘嚴)이라 기록되어 있다. 또한 평청성(平清盛)이 서팔조(西八條) 저택을 지었을 때 그 정원에 신선도(神仙島)를 상징하는 봉호(蓬壘)를 만들어 영구히 자기의 권세를 유지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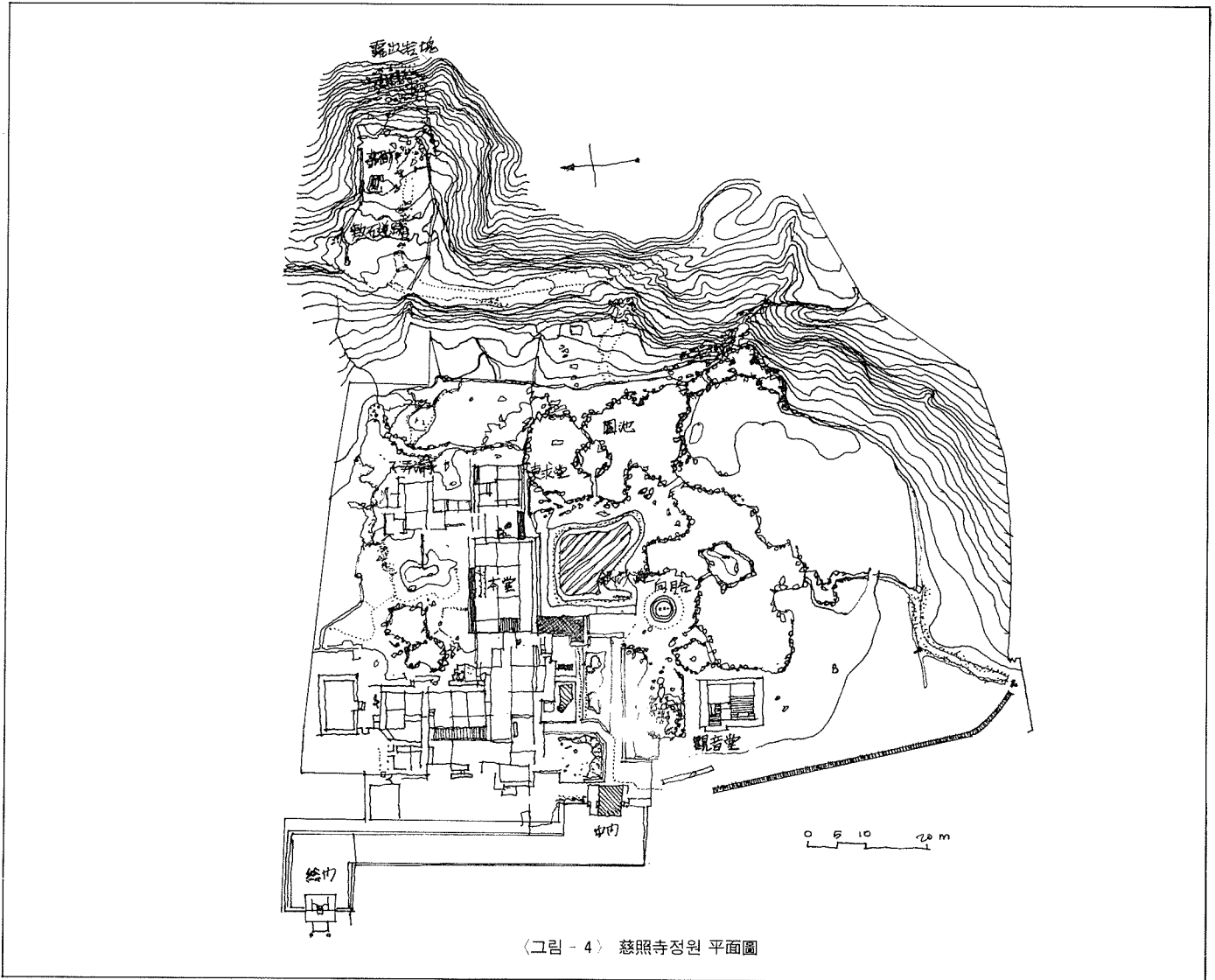
영원한 번영과 불로장생을 희구하였으며, 족리존씨(足利尊氏)도 자기 저택 속에 신선도(神仙島)를 본뜬 임천(林泉)을 꾸몄다고 한다. 이 이후 권력을 가진자들 사이에서는 신선도(神仙島)를 본뜬 정원 축조수법이 유행되었다 한다. 그 이후 원뢰조(源賴朝)가 정권을 획득하여 겸창(鎌倉)에 막부(幕府)가 설치되기는 했으나 문화의 중심은 여전히 황실(皇室)과 등원(藤原) 일족이 살고 있는 경도와 그 부근이었다. 겸창(鎌倉) 시대에 일본으로 전해진 선종(禪宗)은 급속히 일반사회로 퍼져 일본인의 정신생활의 기반을 이루는 결과가 되었다. 후기로 접어들면서 사원의 정원은 정토신앙의 영향을 크게 입어 특수한 형식으로 발달되는데 횡빈(橫濱)의 칭명사(稱名寺)의 결계도(結界圖)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경내의 남문에는 남대문이 있고 대문을 들어서면 전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연못이 있으며 그 중앙에 섬이 축조된다. 남대문으로부터 부지의 뒷쪽 정면에 위치한 금당(金堂)을 향해 일직선으로 그어지는 주축선 위에 놓인 섬에는 남대문쪽에 홍교(虹橋)가 설치되고 금당(金堂) 쪽에는 평교(平橋)가 가설된다. 다시 말해서 이 시대의 정토사상에 입각한 사찰정원은 남대문→홍교→중도→평교→금당으로 이어지는 직선에 의해 양단되는 부지의 이용형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사찰정원의 꾸밈새는 점차적으로 일반 주택의 정원 꾸밈에도 변화를 주는 결과가 되어간다. 라. 남북시대 : 남북조(南北朝) 시대에 있어서도 선원(禪苑)과 정토교적(淨土教的) 정원의 구분이 명확치 않으며, 일본조경사상 불후의 업적을 남겼던 몽창국사(夢窓國師)가 미농영보사(美濃永保寺) 전지(前池)에 형교(亨橋)를 걸었던 정토적 경관을 구성한 것이라든가 서방사원지전(西芳寺園池前)에 염불종(念佛宗)에 속해 있던 서방사원지(西芳寺園池) 지형의 일부를 받아들였다는 사실 및 천용사(天龍寺) 정원의 주요부분 등이 이러한 사실을 단적으로 가리키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 3) 몽창국사(夢窓國師)는 이미 갑비(甲斐), 겸창(鎌倉), 미농(美濃) 등지의 천석(泉石)에 관심을 보이는 한편, 경도(京都)에서는 경도(京都)대로 정원계를 위해 큰 활약을 하였다. 서방사(西芳寺)의 정원축조에 즈음해서는 벽암록(碧岩錄)의 내용에 암사를 얻어 중층의 유리전(瑠璃殿)을 비롯하여 호남정 서래당(湖南亭, 西來堂, 指東庵) 따위를 짓는 한편 그 주위에 황금지(黃金池)를

둘러 그 속에 백앵취죽(白櫻翠竹)의 두 섬을 쌓아 요월교(邀月橋)를 가지고 섬을 서로 이어 놓는 등 아름다운 경관을 통해 선원(禪院)의 이상을 실현하고자 시도하였다. 서방사(西芳寺) 정원은 몽창국사(夢窓國師)의 최상의 걸작품이었을뿐만 아니라, 뒤에 족리의정(足利義政) 모친의 고창전(高倉殿)이나 동산전(東山殿)의 정원이 그것을 모조했다는 사실과 정성친왕(貞成親王)의 복견전(伏見殿) 또한 서방사(西芳寺)의 정원의 영향을 받았다는 기록이 남아있는 것을 볼 때 몽창국사(夢窓國師)의 수법이 실정(室町) 시대의 정원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토세계(淨土世界)를 구상한 정원은 경도금각사(京都金閣寺)의 정원을 살펴볼 때 그것이 의도하는 바를 쉽사리 이해할 수 있다. 이 금각사(金閣寺)는 응영(應永)4년(1397년) 족리의만(足利義滿)이 경도북산(京都北山)에 조영해 놓은 별장 북산전(北山殿)의 후신으로 올바른 명칭은 룩원사(鹿苑寺)이다. 여기에는 금박을 입혀 화려하게 장식한 3층

누각인 사리전(舍利殿) (속칭금각)을 중심으로 넓은 정원이 전개되고 있으며 사리전(舍利殿) 전면 연못 속에는 연(蓮)이 심어져 있고 구산팔해석(九山八海石)이라 불리는 정석(淨石)이 지금도 얹혀져 있다. 이 시대는 수미산(須彌山)을 구산팔해(九山八海)라 불렀다고 한다. 따라서 족리의만(足利義滿)이 조영한 북산전(北山殿) 지금의 금각사(金閣寺) 정원은 사리전(舍利殿)인 금각(金閣)과 그 앞에 전개되는 정원으로서 정토세계를 구상한 구산팔해석(九山八海石)을 얹혀 연(蓮)을 심은 못은 만다라(曼荼羅)에 그려져 있는 팔공덕수(八功德水)가 가득찬 칠보지(七寶池)를 상징한 것이다. 정토신앙(淨土神仰) 사상은 이와 같은 정원 축조에 큰 영향을 미쳐 만다라에 그려진 불전과 칠보지를 정원의 구성 위에 표현하고 뜻을 부여하고자 하는 형식의 정원 수법이 오래도록 후세에 계승되어 강호(江戶) 시대에까지 이른다. 마. 실정(室町) 시대와 도산(桃山) 시대 :

실정(室町) 시대 초기의 정원을 대표하는 것은 족리의정(足利義政)의 동산전(東山殿) 즉 뒤의 지조사(慈照寺)로서 꾸밈새는 금각사(金閣寺)와 흡사하며, 자조사(慈照寺)에는 은박을 입힌 은각이(銀閣)이 있으므로 해서 은각사(銀閣寺)라고도 한다(그림-4). 한편 도심의 귀족의 저택 모습은 낙중낙(洛中洛)의 병풍에 그려진 그림으로 살펴볼 수 있으며, 그것에는 실정(室町) 후기의 평안경(경도) (平安京(京都))속의 초기 서원 건축과 정원관계가 명시되어 있다. 이 시대 정원의 특색은 과거 지형 위주의 경향으로부터 벗어나, 조석(組石)이 두드러지게 되어가고 있는 한편 부지가 협소해지고 있는 것이 눈에 띈다. 또한 실정(室町) 시대에는 선(禪) 사상이 정원축조의 의도에 강한 영향을 미쳐 추상적 구성과 표현을 하는 특수한 정원형태가 발생한다. 즉, 선(禪)의 유심론적(唯心論的)인 사상이 정원 축조법에 강조되면서 정원양식이 경관을 재생시킨다는 사실주의 보다는 경관의 상징화 내지 추상화의 경향이 두드러진 것으로서 그 구극적인 표현이 소정(小庭)이고 석정(石庭)이며, 고산수(枯山水) 정원이 되는 것이다. 고산수(枯山水)정원의 초기작품으로서 전형적인 대선원(大仙院) 서원의 정원은 폭포를 중심으로 하여 심산유곡의 풍경을 20평 정도의 좁은 공간에 조석(組石)과 환 모래로서 표현하고 있는데 그 꾸밈새를 상세히 보면 폭포를 중심으로 3 개의 신선도가 만들어져 있고 각각 소나무가 심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또한 폭포를 표현한 입석에 관음석, 부동석 따위의 명칭이 부여되어 있다. 2 단으로 갈라진 정원의 하단 부분에는 보물선이라 불리는 배 모양의 정원석이 백사(白砂)의 한 가운데 놓여져 있어 출범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이와 같은 면에서 볼 때 대선원(大仙院) 정원은 고산수(枯山水) 정원 이기는 하나 그 정원이 표현하고 담고자 하는 뜻은 정토세계(淨土世界)이고 영겁의 번영을 회원하는 신선경(神仙境)임을 깨닫게 된다(그림-5). 이와 같이 선(禪)의 영향으로 고산수(枯山水) 수법이 발생되지만 그 사상적 배경은 여전히 정토사상이고 신선사상이었던 것이다. 실정(室町) 시대 후기의 긴 전란은 직전신장(織田信長)과 풍신수길(豊臣秀吉) 등 술책 권모에 뛰어난 인물을 태어나게 했으며 이런 자들에 의하여 군사적, 정치적 안정이 정착되어 국가 경제력이 융성해짐으로써 자연적으로 호화로운 정원이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그림 - 4〉 慈照寺정원 平面圖

폭포나 석교(石橋) 또는 연못가의 조석(組石) 등이 모두가 자연에 순응하는 태도로부터 벗어나 과장하는 경향이 보인다. 한편 이러한 경향에 대처하는 표현으로서 다실(茶室)의 노지(路地)에 대한 조경수법이 개발되어 간다. 다실(茶室)은 실정(室町) 시대에 비롯된 일종의 수양인 다도(茶道)를 즐기기 위한 자리로 꾸며지는 간소한 건축물로서 이곳에 이르는 길을 중심으로 한 좁은 공간에 꾸며지는 다정(茶庭)은 일종의 자연식 정원이라 할 수 있으며, 자연의 한 단편을 취해 교묘히 대자연의 운치를 연상시키는데 특징이 있다.

도산(桃山) 시대의 중요한 정원의 유구(遺構)로서는 삼보원(三寶院)과 원성사(圓成寺) 광정원(光淨院) 등의 정원이 있으며, 건물의 의상이나 못가 또는 위로 돌출된 조전(釣殿)과 같은 구조의 건축 수법을 감안할 때 이 시대 정원의 호화찬란한 특색의 배경에는 북고정신이 역력히 흐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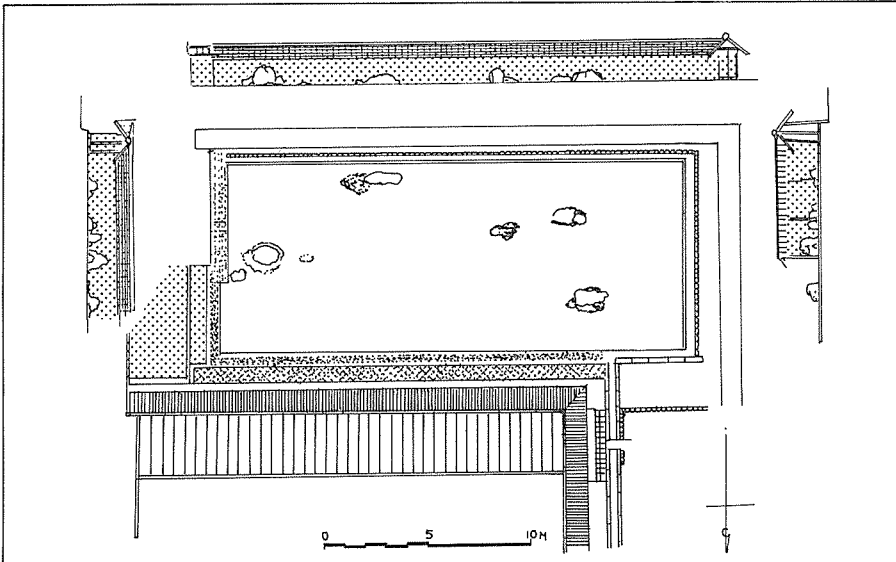
바. 강호(江戶) 시대: 도산(桃山) 시대의 정원수법은 등원(藤原) 시대로의 복고적 정신과 무인들의 호화로운 정원 및 초기 다정(茶庭)의 혼합에 의한 과도기적인 의상이 각기 판을 쳤으나 이들이 지닌 특색을 교묘히 종합하여 완성해 놓은 것은 강호(江戶) 시대 전기의 일이다. 즉 다정(茶庭)의 발달은 그 때까지 실시되어 관상 본위의 고산수(枯山水) 정원이나 축산림천식(築山林泉式)의 회유정원(回遊庭園)의 구성 및 국부적인 구조에도 큰 변화를 주어 일본조경사상 제 3의 황금기를 맞게 된다. 강호(江戶) 시대 초기의 조경은 여전히 경도(京都)를 중심으로 하였으나 이미 그 무렵부터 소굴원주(小堀遠州)를 비롯한 거장공인(巨匠工人)들이 강호(江戶)로 초빙되어 유리한 직장이 제공됨으로써 활기를 띠기 시작한다. 소굴원주(小堀遠州)는 강호성(江戶城) 서환(西丸)의 신산리(新山里)와 품천(品川)의 동해사(東海寺) 지(芝)의 금지원(金地院) 등의 조영에 관여하였으며,

수호후(水戶侯)의 저택인 소석천(小石川), 후락원(後樂園), 기주후(紀州侯)의 서원(西園) 대구보후(大久保侯)의 낙수원(樂壽園), 지인친왕(智仁親王)의 계리궁(桂離宮) 후수미상황(後水尾上皇)의 수학원이궁(修學院離宮) 등이 이 무렵의 작품이다(그림 - 6). 정원의 꾸밈새에 있어서는 강호(江戶) 시대로 접어들어서도 붕래(蓬萊) 방장(方丈), 영주(瀛州)의 삼신선도(三神仙島)를 정원 연못 속에 배치하는 수법이 오래도록 답습되었으며, 특히 대명(大名) (지방영주)의 저택에 꾸며진 정원에는 거의 빠짐없이 신선도(神仙島)를 가진 원지(苑池)가 꾸며져 있다. 강호(江戶) 시대에 꾸며진 이러한 정원을 삼도일련(三島一連)의 정원이라고 부르고 있으며, 강호(江戶) 시대에 저술된 작정전서(作庭傳書)에는 흔히 이 명칭이 실려져 있다. 그 무렵에 꾸며진 경도화원묘심사 동해암(京都花園妙心寺 東海庵)의 정원은 그 설계도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남아 있으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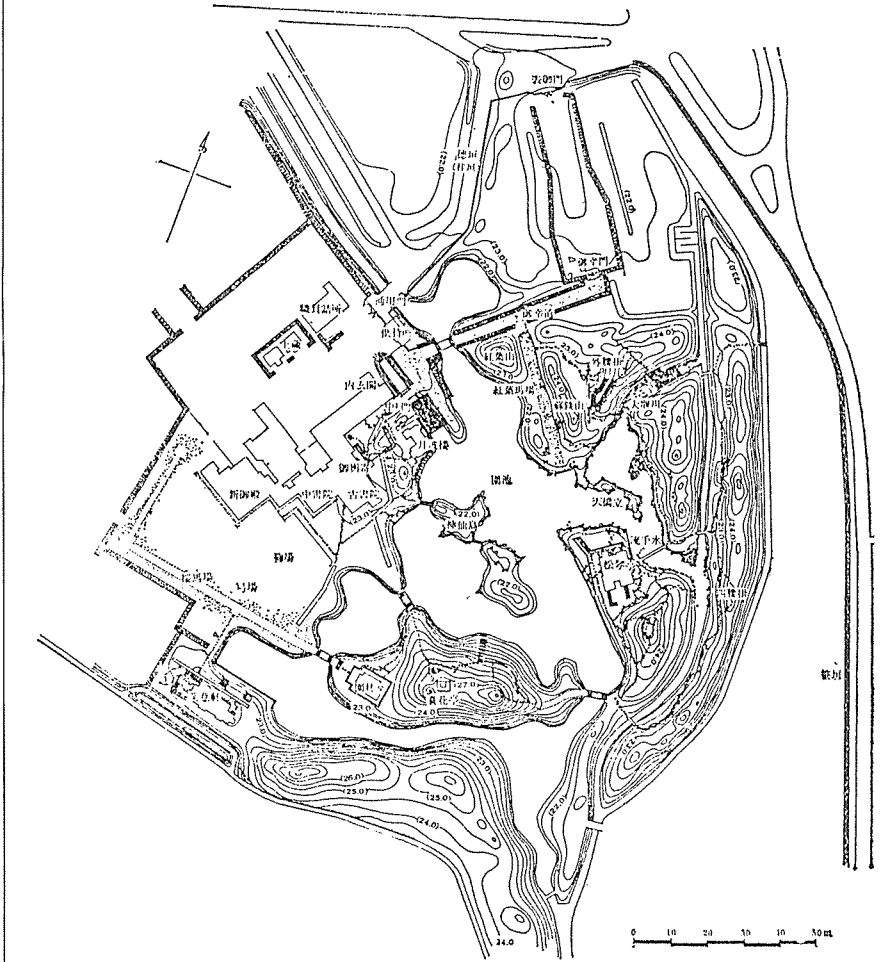
그 계획도에는 동해일련(東海一連)의 정원이라는 표제가 붙어 있다. 이 시대 신선도(神仙島)에 소나무를 심는 것은 규약처럼 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많은 나무 중에서도 소나무가 그중 수명이 길다는 점이 신선도(神仙島)에 있다고 믿었던 불노불사의 영천(靈泉)과 결부되어 신선도(神仙島)에

없어서는 안될 나무가 되어버린 것이다. 신선도(神仙島)를 표현하기 위해 처음에는 반듯이 3개의 섬을 축조했으나 시대가 지남에 따라 이것이 간략화 되어 두 개 내지는 하나의 섬으로 표현하는 수법이 생겨난다. 즉 학과 거북의 생김새를 본뜬 두 개의 섬으로 삼신선도(三神仙島)를

표현하는가 하면 심지어는 거북섬 하나도 신선도를 표현 내지는 대표시킨 것이 남선사 금지원(南禪寺金地院)의 경우가 좋은 예가 될 것이다. 거북섬에는 머리와 다리 및 꼬리에 해당되는 위치에 각각 귀두석, 귀각석, 귀미석을 얹히고 있으며, 이러한 수법은 멀리 신라(新羅) 시대에 경주 안압지 축도(築島)에 쓰인 수법이 일본에 전해져 이러한 형태로 발달되어 온 것이 아닌가 한다. 또한 신선도의 영접성은 학을 동적인 양(陽)으로 보고 정적인 거북을 음(陰)으로 보아 음양의 화합의 생김새로 삼기도 한다. 이 사상은 다시 발전하여 정원에 음양석(陰陽石)을 두는 수법을 쓰게 되는데 강호(江戶) 시대에는 이러한 관습이 성행되어 소석천(小石川)의 후락원 강산(岡山)의 후락원(後樂園) 등에는 정원에 음양석(陰陽石)을 두고 있다. 즉 음석(陰石)은 여성을 상징한 생김새의 자연석이고, 양석(陽石)은 남성의 상징과 같은 생김새의 돌을 서로 마주보는 자리에 얹혀 기문의 변영은 왕성한 생식에 의해 자자손손 계승되어감을 나타낸 것이다. 이는 우리 나라 이조(李朝) 시대의 방지(方池)와 원도(圓島)와 같은 사상이 담겨진 수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인의 그것은 민족성의 차이에 따라 보다 노골적으로 표현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강호(江戶) 시대의 또 하나의 특색은 다원(茶苑)의 발달이 정원 구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던 것으로서 그 때까지 실시되어 오던 시각 본위의 고산수식(枯山水式) 정원과 축산림(築山林) 천형(泉形)의 회유식 정원 구성이나 국부의 구조에 큰 변화를 주어 중세에 축조되었던 정원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석등이나 수수분(手水盆) 따위가 이러한 대정원 속에 놓이기 시작하며 마침내는 정원 구성의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여기에 이르러 일본의 정원 구성소재로서 석등과 수수분(手水盆)은 없어서는 안될 존재가 되었으며, 다정(茶庭)의 경우 석등은 아간의 조명이라는 실용적 역할도 하게 되었다. 명치(明治) 시대로 접어들면서 서양풍의 건축과 함께 서양식 정원이 도입되어 초기는 프랑스 기하학적과 영국(英國)의 풍경식(風景式) 영향을 받았고 동경의 신숙어원(新宿御苑)이나 적판이궁(赤坂離宮)은 외국인의 손에 설계된 것으로서 곡선의 아름다움이 강조되어 있다.



〈그림 - 5〉 龍安寺 石庭



〈그림 - 6〉 桂離宮 정원

(다음 호는 우리나라의 전통조경)